

환자전은 제국주의의 부착물

김 두 선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있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외국환자시장에서 환자시세가 대폭적으로 급격히 파동하고있는것이다.

외국환자시장에서 환자시세의 대폭적인 파동은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강행되고있는 대외시장쟁탈정책실현의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환자전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 정치, 경제적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 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43권 327페이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품판매시장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그것을 쟁탈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치열한 싸움은 금융분야에서 환자전으로 더욱 심화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자본은 대내적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플레이적수탈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환자전을 통하여 시장쟁탈전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더 많은 리윤을 얻어보려고 획책한다.

환자전은 본질에 있어서 환자투매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상품시장을 쟁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사이의 경쟁이다. 환자전이 벌어지면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환자거래, 환자시장령역에서의 혼란과 무질서, 갈등과 모순은 더욱더 심화되며 자본주의국제경제관계를 헤어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게 된다.

자본주의국제경제관계를 헤어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환자전은 다른아닌 제국주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하나의 부착물이라고 할수 있다.

환자전이 제국주의의 부착물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그것이 제국주의가 있는 한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라는것이다.

환자전이 제국주의의 부착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환자전이 제국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기때문이다.

환자전은 자본주의화폐제도력사상 금본위제가 파탄되고 심각한 통화적혼란이 발생하면서 이 세상에 생겨났다.

금이 유일한 화폐상품으로 된 조건에서 은행권, 보조주화, 정부지폐 등 가치기호들이 발권은행을 통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중량대로 자유롭게 금주화(금화) 또는 금피와 태환될수 있는 자본주의화폐제도인 금본위제는 금의 자유태환, 자유주조, 자유이동의 3가지 조건에 의하여 유지되였다. 금본위제에서는 이 3가지 조건으로 하여 화폐의 현실적류통량이 필요류통량에 자연발생적으로 접근하고 금본위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통화들사이 환자시세는 환자평가를 중심으로 금현송점범위내에서만 변동되였다. 이처럼 금본위제는 여러 통화들사이에 공고한 시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대외경제활동을 폭넓게 진행해나갈수 있는 가장 리상적인 통화제도로 간주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독점자본의 리익을 위한 국가적간섭과 제한으로 제국주의나라의 정책적지향이 바뀌여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결국 금본위제를 파탄으로 이끌어갔다.

금본위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나라들사이의 환자시세는 환자평가를 중심으로 좁은 변동폭을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절되기때문에 국가가 환자시세를 강권으로 고착시켜 놓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금본위제가 파탄되면서부터 환자시세는 아무런 기준도 한계도 없이 대폭적으로 급격히 변동하여 환자파동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세계의 경제교류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독점자본의 리익을 대변하는 제국주의국가는 이러한 혼란과 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환자파동을 통화당국을 통하여 고착시키려는 시도밑에 환자제한을 실시하였다.

그 제한의 한 형태가 공정한환자시세제이다. 공정한환자시세제는 환자시세를 통화당국의 권력과 법으로 고착시켜놓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고정환자시세제와 같은 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정한환자시세제는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을 계기로 기형적인 금본위제마저 파탄되었을 때부터 실시되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환자파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국가적관리밑에 저마다 국가공정한환자시세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자기의 요구에 맞게 환자시세를 조정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게 하였으며 제국주의는 이 공간을 통하여 자기의 대외팽창야망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자전은 제국주의에 의하여 산생된 통화적위기가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인 것이다.

환자전이 제국주의의 부착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환자전이 제국주의시기 독점자본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서 자본주의경제위기는 하나의 만성적인것으로 되었으며 그 어느때보다 심각화되었다. 특히 원료원천지와 상품판매시장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리해관계상 대립과 마찰은 특별히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하나 자기의 경제, 자기 나라의 독점들을 해외경쟁자들로 부터 보호하고 자기의 세력권과 시장지배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류혈적인 전쟁을 벌리는 한편 무역 및 금융정책상에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은 시장쟁탈전에 미쳐날뛰는 독점자본의 리익을 대변하여 제가끔 공정한환자시세를 끌어내리는 경쟁을 벌렸다.

환자시세가 국내통화의 감가 즉 물가등귀정도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그것은 수출자가 외국시장에 수출한 상품의 대금을 자기 나라 통화로 전환시킬 때에는 수출하여 받아들이는 금액보다 많은 자기 나라 통화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편차리익은 수출자본가에게 초과리윤의 원천으로 될수 있는 한편 수출자가 그만큼 수출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대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로도 될수 있었다.

세계공황으로 인하여 상품시장이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좁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국가들은 환자제한을 통하여 환자시세(평가)를 인위적으로 고정시켜놓고 그것을 물가등귀속도를 앞질러서 끊임없이 평가인하함으로써 자기 나라 독점자본으로 하여금 상품시장쟁탈전에서 우세를 차지하도록 책동하였다.

이와 같이 고정환자시세를 인위적으로 물가등귀정도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상품수출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경쟁자들을 물리치려는 제국주의국가들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획책이 바로 환자투매로 되었고 환자투매를 기본으로 하는 상품시장쟁탈전이 환자전을 이루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나라독점들은 국내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대외시장문제가 첨예화될 때마다 환자전에 매여달리면서 그 위기를 조금이나마 모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을 계기로 벌어진 환자전은 제국주의나라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의 희생으로 하여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약육강식의 시장쟁탈전이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나라들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제국주의통화금융제도를 더욱 심각한 혼란과 위기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을뿐이다.

한 나라가 평가인하를 하면 상대국이 대응하여 평가인하를 하거나 또는 관세장벽을 쌓아올리게 되므로 그것은 순식간에 시장쟁탈전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제국주의나라들에 파급된다. 이것은 결국 제국주의나라들의 상품시장을 한결음한결음 더욱 좁아지게 하고 최소한의 상품거래마저 막아버리며 그들의 위기를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기형적금본위제가 파탄되자 모든 제국주의나라들은 서로 상대방의 희생으로 하여 제국주의국제통화금융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파탄되었으며 그토록 국가적간섭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금융령역은 거의 무정부상태에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은 저들이 지배하고있는 식민지에속국가들과 저들에게 추종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희생하여 시장쟁탈전, 환자전을 계속 벌리면서 해외팽창과 침략정책을 실현하여보려는 야망밑에 통화빨력을 형성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렬강들은 자기의 지배밑에 있는 나라들에 내리먹여 통화빨력을 조작하고 종속국의 외화를 전부 장악하여 다른 빨력과 맹렬한 환자전을 벌렸다.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환자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특별히 강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국제통화분야에서 전례없는 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국제관계에서 세력균형이 변화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가 조작한 국제통화기금, 금교환제에 의하여 자본주의세계에는 딸라의 지배체계가 세워졌다. 이때 미제는 국제통화기금성원국들의 민족화폐를 모두 딸라에 고착시켜놓았다.

그러나 1971년 8월에 금교환제가 파탄되고 딸라위기가 폭발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성원국들인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공정환자시세, 고정환자시세를 유지할수 없게 되었다.

1973년 2월이후 자본주의나라들이 거의나 변동시세제로 이행한 조건에서 국제통화기금은 변동환자시세제를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국제통화제도가 더는 수습할수 없는 환자파동, 환자위기속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체제내부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체제에서 손아래동맹자로 되고있던 나라들이 미국과 경쟁하는 대등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화폐령역에서도 미딸라를 배척하고 국제통화의 지위를 다투

고있다.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적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고 상품시장쟁탈전, 무역전을 더욱 강도높이 전개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시장쟁탈전의 통화적공간으로 되는 환자전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1980년대 미국이 늘어나는 무역적자와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고 서유럽자본주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일본엔시세를 끌어올리도록 강박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일본경제를 심한 불경기속에 몰아넣은것은 미일환자전의 명백한 표현으로 되었다. 최근시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이 경쟁적으로 지속적인 량적완화의 통화정책을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환자시장개입에 적극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것 등은 현대환자전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국가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맹렬한 환자전을 벌림으로써 심각화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환자전이 벌어지면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환자거래, 환자시장령역에서의 혼란과 무질서, 갈등과 모순은 더욱더 심화되게 된다. 뿐만아니라 한 나라가 환자전을 통하여 시도하는 환자투매의 효과성은 다른 나라의 대응투매와 보복관세에 의하여 말살되어버리고 결국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상품거래액을 인위적으로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들간의 경제무역분야에서의 모순, 나아가서는 정치적모순을 더욱 격화시켜 자본주의국제경제관계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경제위기는 필연적이고 항시적인 현상으로 남아있듯이 환자전도 언제나 함께 존재하게 되며 경제위기와 판매시장을 둘러싼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이 첨예화될수록 통화분야에서의 싸움도 더욱 격화될것이다.